어느 연수에서 만난 한 교수가 "학교 현장을 자주 접해 보고서 느낀 것 중 하나"라면서 내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대학 교수님들보다 학생들을 판단의 주체로 대하는 경우가 참 드문 것 같아요. 사실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아이들은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학생들을 주체로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종종 부모가 '사랑'이라는 한 마디로 자녀의 모든 판단과 기호를 거세시키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길을 닦아 놓은 후 자녀에게는 따라만 오라고 하는 안타까운 경우들을 보게 된다. 부모도 아이도 나쁘지는 않으나 모두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허나 정작 뒤돌아보면 나도 그런 선생님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된다.

이번 호는 학생의 자주성을 바탕으로 한 참여와 소통이 있는 학급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해 보기로 한다.

**'참여와 소통이 있는 학급' 만들기 ③**

# 학생 교사 관계 다시 보기 II

교실밖교사커뮤니티(eduict.org) 중등학급운영연구팀

**'자주적 존재'로 학생 인정하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급 일에 적극 참여하고 그를 위해 교사, 학생, 학부모, 사회와 소통하는 이상적인 학급. 이러한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학생들은 미성숙한 존재이므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는 교사의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젓가락질을 잘 못하는 아이라고 해서 늘 대신해서 먹여 준다면, 그 아이는 스스로 젓가락질을 할 수 없다. 반찬을 흘리고, 여기 저기 묻혀 가며, 때론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배울 기회가 주어져야 언젠가 능숙하게 젓가락질을 할 수 있다.

기능이 아닌 감정도 학습에 의해 습득될 수 있다. 부모가 화를 내며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고, 누군가를 때리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화가 났을 때 그와 비슷한 행동을 보인다. 그러나 학교나 사회에서 다른 반응들을 본다면 또 다른 감정 표현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은 모방이라고 했다. 학생들이 잘 모르거나 익숙하지 않은 것을 경험과 관찰을 통해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우선이다. 이때 교사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놓고 무조건 따라오게 만들면 안 된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학생들이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참여와 소통을 실현하기 위한 학급 자치**

이러한 경험의 기회를 마련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학급 자치를 생활화하는 것이다. 학급에서 이뤄지는 모든 일들을 학생들이 결정해서 판단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본인들이 질 수 있는 구조라면, 함부로 결론을 내지는 못할 것이다. 학생들 저마다 그 결과를 걱정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다른 친구들과 소통하려 하지 않겠는가. 또 더 나아가 일의 해결을 위해 구조를 이해하려 하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지 않을까.

**사례 1**

"지각 1분당 벌금 1,000원씩이나?"

학년초 학급회의를 통해 학급 내규를 정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가장 활발하게 의견을 내놓는 것은 청소와 지각, 아침자습과 관련된 부분이다.

두발과 복장은 어차피 학교 규정을 벗어날 수 없기에 쉽게 결론이 나고, 모둠 구성도 별 무리 없이 결론이 난다. 그러나 개개인의 직접적 이해가 얽힌 청소, 지각, 아침자습 등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특히 '지각'의 경우 담임교사가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벌칙들이 주어진다. 1분당 100원에서 1000원의 벌금 내기, 혹은 3회 이상 지각하면 반 친구들에게 피자 사 주기, 지각 학생 사진을 인화·확대해서 교실 문에 붙이기, 1분당 1대씩 맞기 등. 교사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한다. 이때 "장난치지 말고 진지하게 하라"는 교사의 충고로 지나친 벌칙은 자체 삭제되었다.

학생들일지라도 자신이 한 약속을 어기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들이 내린 결정에 의해 본인들의 생활에 불편함이나 불이익이 생긴다면 그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많은 경우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뜻으로 교사가 적극 개입해 학생들 의견을 그 자리에서 바로 수정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 중 하나는 아마 '어른이, 선생님이 내려 주는 결론만이 옳으니, 혹은 어차피 그렇게 진행될 테니 무조건 따르자'라는 생각도 있을 것이다.

사례 2

### 좀 부족하고 황당해도 교사 개입 자제해야

역시 학급 내규를 정하는 학년 초 학급회의. 우선, 정해야 하는 내규의 종류를 결정하고, 그 규칙이 잘 이행되기 위한 방법도 함께 제시할 것, 그리고 생활하다가 내규를 바꾸어야 할 때에 필요한 최소 규정도 정하기로 하였다.

본격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몇몇 사람의 투덜거림으로 전체 규정을 바꾸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담임교사의 의견을 전했다. 그리고 이렇게 학급 회의에서 결정되고 변경되는 내규들을 일 년 동안 잘 정리하여 학년 말 학급문집에 싣기로 하였다. 이러한 의견을 안건으로 올리고 학급 회의를 시작했다.

이렇게 학급 내규를 만드는 과정에서 때로는 누락된 것도 있고, 때로는 황당한 것도 있지만 아주 심각하고 급한 것이 아니라면 가능한 담임교사는 개입을 안 하는 것이 좋다. 대신 조·종례와 학급회의를 정상화하여 늘 본인들이 정한 규칙과 생활을 점검해보고, 평소 학급 생활에 대한 의견 개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누구나 공감하듯이 제시되는 정답만을 외우는 것이 좋은 교육방법은 아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누군가가 제시한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이것이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사람인가. 살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상황에 대한 모든 답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외울 사람도 없다.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당연한 진리다. 그 방법은 학생이 매번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해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의사 수렴 과정과 결론 도출 방법, 그 결론의 실제적인 결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피드백 등. 이러한 방법과 과정의 습득을 통해 아이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타인과 소통하려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다양한 소통의 방법 경험하기**

학급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한 학급 학생들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의사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자치가 잘 정착되면 다양한 의견 개진과 소통이 이뤄지리라 생각하지만 그것을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학년 초 이뤄지는 학생들과의 면담은 학생과 교사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시간이다. 학급 내 친구들간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집단 상담을 통해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 상담에 어렵고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고 물러설 필요는 없다. 예쁜 종이에 자신의 꿈이나, 장단점, 우리 학급에 대한 인상 등을 5자로 적어 보고 뒤섞은 다음, "누가 썼을까" "왜 썼을까" "왜 그렇게 썼는지"를 이야기해 보자. 아마 서로 간에 이해하는 폭이 달라질 것이다. 관심이 있다면 집단 상담과 놀이 관련 서적, 문건 등을 통해 더 많은 방법을 만나고 적용해 볼 수 있다.

담임 선생님들이 학생을 이해하고 학생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 요즘은 인터넷에 학급 홈페이지를 많이 만들고 있다.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 홈페이지, 커뮤니티 등이 그것이다. 이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의사소통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하며 많은 교사들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구조와 목표를 갖느냐에 따라 소통의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특히 교사 개인 홈페이지나 학교 홈페이지의 경우 학습 관련 홈페이지와 겸하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의견 개진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 손님으로 다녀가는 느낌이 강해 소통을 목적으로 쓰이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

미니홈피의 경우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고 쉽게 다녀가며, 요즘 학생들의 경향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것도 구성상 운영자의 영향력이 크고, 운영자 의사 전달의 힘이 강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자칫하면 소통을 가장한 전달이 될 수도 있다. 또한 학부모와의 소통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이미지와 감성을 자극하고, 눈에 뜨이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어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이 장점이다.

**온라인 소통도 제대로 써야 '약' 돼**

카페나 커뮤니티는 운영자가 두 명 이상일 수 있으며 다양한 게시판을 함께 구성해 간다는 점에서 온라인을 통한 소통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학부모들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는 방법이 고안돼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학급회의를 온라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학급회의를 온라인과 병행하여 온라인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오프에서 결정하는 방식을 쓸 수 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의견 수렴은 게시판을 이용하고 결정 과정은 채팅을 이용한 온라인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있다.

이런 온라인 학급회의 결과가 생활에 반영이 되는 경우 회의를 거듭할수록 학생 참여도가 올라가고 회의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이는 또한 학급회의 시간 부족 문제(실제 학급회의는 1주일 한 시간에 불과)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이러한 학급운영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교사가 개입을 참는 것이다. 학생들의 토론 내용을 듣고 있으면 아기가 금방 우물에 빠져버릴 것 같은 아슬아슬함을 경험하게 된다. 혹은 이 사소해 보이는 행동으로 인해 앞으로 바늘 도둑이 소 도둑되는 결과를 맞게 될까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잘못한 행동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꾸지람을 하지 않으면 그 행동이 수정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런 갈등이 엇갈리는 시간이다. 하지만 자주적 참여란 그 결과가 보장될 때에 이뤄질 수 있다. 아무리 열심히 토론해도 결과는 다른 사람이 내린 결론을 따라야 한다면 어느 누구도 열심히 토론에 참여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학생 자치를 통해 판단의 과정을 경험하고, 그로 인한 결과(좋든 나쁘든)를 내게 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등. 이것이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의 방법을 찾도록 하는 교육이 아닐까.

**BOOK**

## 현실은 복잡해도 쿨하게, 당당하게

**부모의 이혼으로 엄마와 단둘이 살던 펠리가 아빠와 살게 되면서 겪는 좌충우돌 이야기**

"나 아빠랑 살면 안 돼?"
"난 갓난애가 아니야. 젖 먹이고 기저귀 갈아 주고 그러지 않아도 돼. 나랑 같이 산다고 나한테 손 갈 일은 없다니까. 내가 아빠 집에서 지내도 있는 티도 안 날걸!"

펠리는 엄마와 단둘이 살지만, 보고 싶을 때 언제든 아빠를 볼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면서, 심지어 부모가 헤어져 사는 장점을 한껏 누리며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간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뮌헨으로 직장을 옮기면서 펠리의 평화로운 삶이 깨진다. 펠리는 아빠와 친구들이 있는 빈을 떠나고 싶지 않다. 우여곡절 끝에 펠리는 아빠와 함께 살게 되는데, 이제까지 알던 아빠와 전혀 다른 모습에 당황하게 되는 펠리. 과연 펠리는 아빠와 잘 살 수 있을까?

**우리문고 15 / 크리스티네 뇌스틀링거 지음 / 김라합 옮김 / 유기훈 표지 그림 / 값 8,000원**